

Tim Gombis 박사 , 갈라디아서, 세션 7, 갈라디아서 5:2-26

© 2024 팀 고펜스 (Tim Gombis)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갈라디아서 5:2-26의 7번째 세션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관한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26절까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그 마지막 권고는 그런 다음 그가 말하는 새로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성경에서 훨씬 나중에 추가된 구절이 할례의 일부가 아닌 경우가 있느니라 원본 텍스트.

확인은 설명하기 위해 텍스트를 분할하는 방식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에 의해 던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장 2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화를 저항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합니다. 2절에 보면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이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바울의 주장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는 4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글썄요, 이러한 권고에 대한 한 가지 관점이나 바울의 주장의 논리는 바울이 만약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온 갈라디아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것에서 돌이켜 율법주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는 시도를 시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완전한 순종의 가능성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Paul은 그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것과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가 피하고 싶은 배타적인 역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타적인 차원 바깥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온전한 유대인으로 남아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유대인 형제자매들, 즉 믿음의 자매들과 형제들과 함께 앉아 온전히 함께 참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즉 그것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상징입니다.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아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게 된다면, 바울은 그들이 동료 유대인들과만 교제하고 이방인과 단절되는 배타적인 존재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 바울의 시나리오에서 그리스도는 여기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이 다민족, 단일 하나님의 가족을 건설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이방인과의 교제에서 제외된다는 갈라디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제한적인 의미, 구별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물론 그렇게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로 넘어가서 바울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이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라. 이 용어는 실제로 칭의, 칭의에 대한 소망과 동일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 갈라디아의 상황을 그 마지막 날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칭의를 받게 될지, 현재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칭의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셨는지 등으로 구성한다면 실제로는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구별됩니까? 글쎄요, 풀은 그것이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미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속한 사람들은 단순히 칭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넷째,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 것도 아니로되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논리를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차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브라질인, 러시아인, 캐나다인, 베네수엘라인, 유대인, 비유태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구별은 이제 존재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적 차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각 민족의 특수성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존엄합니다.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터키인은 여전히 터키인이다.

이집트인은 여전히 이집트인이다. 우리 시대에도 남자는 여전히 남자입니다. 여성은 여전히 여성입니다.

미국인은 여전히 미국인이다. Michiganders는 여전히 Michiganders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근본적인 정체성,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관에 관하여 바울은 6절에서 할레나 무할레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의 사물 개념에서 급진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유대인의 경우, 그들의 상속받은 세계관은 그 구별을 실제로 근본적인 구별로 연관시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는 것과 유대인이 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개인의 정체성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실제로 바울의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6장 15절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다시 이 근본적인 주장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그것은 그 전체 영역, 그 새로운 창조 영역에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성, 여성, 노예, 자유인, 유대인, 비유대인으로서 그 영역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여기 7절에서 질문을 통해 권고합니다. 갈라디아인 여러분,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그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했느냐? 내가 여기서 말한 것에 또 하나의 작고 미묘한 추가 사항은 바울이 단순히 믿는 것과 순종이라는 어두운 용어를 대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가 순종이라고 상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방해했나요? 누가 당신의 경주에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 당신을 은혜의 길에서 밀어냈습니까? 8절,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즉, 갈라디아서에 전해진 가르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그 부르심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교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유대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가 율법에 대해 말할 때 율법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득을 의미합니다. 이 설득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설득으로는 당신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득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 견해는 유대 선교사들의 견해이지 너희를 부르신 이의 견해는 아니니라. 문제는 모세의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인종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이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구절인 신명기 27장을 다시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7장 15-26절은 신명기 27장에서 그가 변태적이고 터무니없이 극악한 방법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저주를 받아 언약백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부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전체에 퍼질 약간의 감염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다른 견해를 가지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오직 너희를 요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언약백성 안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면, 그 고의적인 불순종과 그가 짊어진 저주가 언약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9절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부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갈라디아 회중에서 유대인 선교사들을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의 축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꺼내세요. 11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왜 계속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가 할례 전파를 거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울이 때때로 할례를 설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일부 해석가들이 갈라디아의 선동가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할례를 설교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지 마세요. 나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때 바울이 1장에서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룹의 일부였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백성인 유대인의 순결을 위한 그룹의 일부였으며, 그 그룹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종류의 외국 부패 영향력을 밀어내고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전에 죄인으로 보았던 사람들을 완전히 포용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근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례를 전파했다면 십자가는 그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죄로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을 위해 이방인들과 단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죄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글쎄, 그것은 엄청난 걸림돌이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전파 활동으로 인해 그 걸림돌이 실제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스캔들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과 실제로 나란히 서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에 본 시각, 즉 옛 창조, 현 악 시대, 새 창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두 현 악 시대 사고방식의 일부이며, 십자가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에게는 우주적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존재의 영역을 죽였고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세상에 관련된 나의 편견과 낡은 가정들도 또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를 죽이거나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그 문화에 대해 죽은 것으로 여기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도발적인 진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유대인 선교사들에게 스스로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Paul은 이 편지에서 화를 냈습니다. 바울의 그 구절은 정말 누구의 인생 구절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중학생을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유의 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절에서 15절로 가서 자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인의 자유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자유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 너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당신은 예상치 못한 현실인 이 자유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당신의 존재를 이제 육체가 공동체로 이동하여 해를 끼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반드시 개인의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나에게서 육체가 있거나 나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인간 자신을 초월하고 공동체 생활을 감염시키고 영향을 미치며 현재 악한 시대의 특징인 노예화하는 존재 방식으로 가져오기 위해 일하는 인류 내부의 일종의 반신 충동인 육체의 우주적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육체의 권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새 창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육신의 방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바울이 실제로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에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생각에 바울이 여기서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자유를 향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 현실에 거주하고 이 노예화하는 현실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사회에서 유대인 선교사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발생한 균열을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가두어 가두어 화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맞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매우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 공동체로서 담대하게 전진하려고 노력하지만, 커뮤니티 구성원을 나쁜 사람으로 소외시키거나 비난의 자리에 놓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흥미로운 성찰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 종종 육체가 해를 끼칠 기회를 주는 교회 생활에 거주하는 방식,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또는 장애물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비전은 필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세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의 우선 순위와 복음 목표, 복음 논리를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13절 마지막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사랑과 섬김이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섬김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

그러므로 사랑과 섬김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임재가 공동체에 스며들면 그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 율법에 대해 바울은 모세 율법 자체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전체 요점입니다. 전체 율법은 이 한 단어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전체 요점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따라서 해결해야 할 상황과 극복해야 할 갈등은 실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 사회 갱신 프로젝트에서도 서로를 향한 자세, 목표, 목표, 전체 비전이 사랑과 봉사로 가득 차 있는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읽힌 성경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신실함의 공동체를 육성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내부인과 외부인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26 절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묵시적인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바울은 갈등하는 두 영역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영역을 육체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이것을 영의 영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여러 바울의 맥락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영역이 역동성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단지 두 개의 중립적이고 정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영의 영역에는 생성 역학이 있고, 육신의 영역에는 생성 역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여기서 생성 역학은 파괴적이며, 여기서 생성 역학은 생명을 주고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구절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이고 열매를 맺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육체, 즉 육체를 생산하는 공동체의 작품입니까? 제가

첫 강의에서 언급한 갈라디아서 5장, 16장 이하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많은 약속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영성 측면에서 자주 읽혀집니다.

즉, 개인으로서 영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영으로 충만하여 영으로 행할 수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개인화된 영적 존재 방식으로 종종 간주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 나 자신에게서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인 장소에 나 자신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나쁘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종의 육체 안에서 걷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피하기 위해 개인으로서 특정 사항을 피하거나 다른 종류의 관행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영의 힘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나에게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개인적이고 개인화된 관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그다지 잘 해석되지 않은 여러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우주 역학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청중에게 분별력의 렌즈를 주고 싶어했습니다. 특정 우주 애니메이션 역학이 커뮤니티를 압도하는 시기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우주 애니메이션 역학이 커뮤니티에서 작동하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물을 물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영의 열매가 맺히고, 소망이 맺히는 등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 이상 숭배가 있는 곳, 분쟁과 시기와 당파와 분열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다른 역학이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육체와 우주의 힘으로 활력을 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육체의 존재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가르침을 가져온 교사들이 있고 분열, 낙담, 당파, 싸움, 저격 등의 공동체 역학이 있는 상황이 여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 가르침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우주 영역에서 나옵니다. 상호 봉사과 사랑이라는 이러한 대안적인 행동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면 지역 사회에서 정신의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안들에게 분별력을 부여하여 그들의 공동체에서 어떤 종류의 우주 역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초기에 권고합니다. 나는 공동체로서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별화된 명령이 아닙니다.

즉, 이 영계에 살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산다면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는 육체의 욕망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육체의 욕망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두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 나 자신 안에 육체의 역동성과 영의 역동성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갈등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갈라디안인 여러분. 그리고 당신은 이 두 우주 영역이 서로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개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느낍니다. 정신에서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학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과 상호 사랑의 공동체 패턴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커뮤니티는 이러한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경쟁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분노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나 두 우주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7절 끝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는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 문구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사이에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시대의 교차점에 살고 있고 당신의 공동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두 우주 영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John Barclay가 이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일종의 전쟁 지역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위한 길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바울이 이것들이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싸움을 통해 거기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종류의 공동체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현재 갈라디아인 공동체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영의 영역에서 다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종의 시대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종류의 커뮤니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글썄요, 만약 당신이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영역에 살면서 공동체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낼 즉각적인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생각한 템플릿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자면, 나는 17절의 마지막 표현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석을 찾지 못했지만, 이 우주적 육체의 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 이 새로운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그분이 감독하시고, 주 그리스도가 감독하시고, 주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퍼져 계시는 이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 두 영역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은 우주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신중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로 가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복수형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공동체는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설득이 나온 곳인 옛 세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유대인 신분을 채택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는 모세 율법과 지속적이고 강렬한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읽고 연습하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의 이스라엘 특유의 측면을 채택하지 않고 모세 율법을 성경으로 읽고 간주합니다.

이방인으로서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국가 헌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페이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고, 토라를 알고, 지혜문학과 선지자를 알아가십시오. 19절부터 23절까지가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게 이러한 경쟁 영역의 역동성이 시작되고 실행되는 시기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육체의 행실이 드러납니다.

즉, 이 영역이 커뮤니티에서 생성하는 역동성은 분명하거나, 모든 커뮤니티가 일종의 경험을 할 커뮤니티 역동성이 분명하고 커뮤니티가 해당 영역에 깊이 내장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파괴적인 경쟁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이라, 술 마시고 이런 것. 이는 많은 경우에 이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업 행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종류의 행동을 보면 그 지역사회가 언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최대한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성서에서 이러한 악덕 목록을 읽을 때 항상 여기서 잠시 멈추곤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죄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술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다른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일종의 교회 권징을 시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벌이나 파벌, 우리는 그것이 단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투, 부러움.

나는 목회 직원으로 일할 때 흥미로웠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직업적 질투가 실제로 내가 속한 교회 직원들에게 어떻게 살아 있고 잘 살아 있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겉보기에 별 것 아닌 것 같은 죄와 최악된 행위들이 다른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들과 같은 수준에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함께 있고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모으시려고 보내셨다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모든 것은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말자. 다른 것보다 더 죄 많은 죄나 행동의 순위를 매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관계 역학 및 그룹 패턴에 대해 생각하도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도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생활을 망치는 것은 모두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에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이런 일에도 미리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두 차원에는 역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차원에도 역동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파괴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주님의 종말론적인 날을 향해 나아가더라도 이 영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자신의 삶을 심은 공동체는 이 영역의 종말, 즉 파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러한 삶의 습관을 계속 발전시키고, 경계하고, 미루고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일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기업의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공동체에서 이것을 본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압도되고, 지배되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생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 여러분, 이러한 발전을 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육체의 우주적 힘에 의해 감독되고 활력을 받는 일종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런 종류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적 행동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우주 현실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끌려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시대에 그들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있으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분출되고 파괴적인 커뮤니티 역학을 생성하는 열정과 욕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우리는 이 새 영역에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거기서 살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서로 경쟁하는 분열적인 공동체가 되지 맙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하는 일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19-23절의 이 구절을 취하고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적는 것은 공간이 그리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체의 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런 다음 갈라디아서를 통해 생각하고 이 원을 더 크게 만들고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행동, 태도, 행동, 정체성 표시, 언어 패턴이 무엇인지, 여기 갈라디아서의 행동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표시, 자세, 언어 패턴, 여기 갈라디아서의 삶을 구성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 다양한 역학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글썄요, 우선, 여기에 있는 것이 실제로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눈치채지도 못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로 넘어가서 그룹과 함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현대의 정체성 표시는 무엇입니까? 현대 관계 역학이란 무엇입니까? 음성 패턴? 커뮤니티 행동? 나는 그것에 매력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 문화에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조작적인 행동. 중상.

잡담. 파워 게임. 위협.

무엇이든. 창의력을 발휘하여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룹으로 하는 것은 재미있고,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목록이 실제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좋은 공동체 생활을 망치는 파괴적인 행동의 종류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반대를 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덜 운동된 근육 중 하나가 가능한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상상할 때 기독교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독교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행동, 태도, 정체성 표시, 공동체 행동, 사회적 패턴 및 관계 역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접근하여 갈등 상황을 해결한다고 상상하는 모방의 자세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것,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 영역에서 갈등 상황에 접근하는 대신, 누군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등을 벽에 밀어붙이고, 자기방어적으로 대응하도록 자극합니다.

그것은 대개 파괴적인 상황으로 끝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영향력을 포기하고 상황에 접근하는 이 영역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레버리지, 권력 축적, 레버리지 항복, 권력 항복의 자세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교회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들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함께 일하거나 함께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신약성서에는 수많은 정체성 표시가 있으며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를 현대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실제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좋은 단어는 십자가가 이 세상에 우리의 죽음을 가져오고 이 우주 영역 전체의 창조를 시작한 것이라면 십자가는 우리가 실제로 이 새로운 영역에 거주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내재된 부활 역학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십자형 태도를 찾아보고, 십자형 행동을 찾아보고, 십자형 언어 패턴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십자가 모양의 어떤 종류의 음성 패턴을 채택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모양의 어떤 종류의 관계 역학을 채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계적 접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활의 영역을 가져왔다면 십자가 모양의 우리 공동체 역학은 부활 역학의 생성이다.

십자가형 의 소망입니다 . 이것이 새 창조 공간, 이 새 창조 우주 공간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부활의 역동성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갈라디아서를 통해 퍼져나가는 근본적인 신학적 총동 중 일부는 우리가

본문의 표면에서 볼 수 있는 일부 것보다 현대 환경에 훨씬 더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Tim Gombis 박사입니다 . 갈라디아서 5:2-26의 7번째 세션입니다.